한화투자증권

2026년 3월 5일
디지털자산

RWA Weekly

크라켄, 연준 마스터계좌 승인

▶ Analyst 최윤영 yy.choy@hanwha.com 3772-7402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의 은행 부문 크라켄 파이낸셜이 연준의 마스터 계좌 승인을 받으며 암호화폐 기업 최초로 중앙은행 결제망에 직접 접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크라켄은 상업 은행을 중개로 이용하던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 기관투자자와 대형 고객의 달러 결제와 정산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다만 이번 계좌는 준비금 이자 지급이나 연준 대출 이용이 제한된 '스키니 마스터 계좌' 형태로 결제 기능 중심의 제한적 접근권을 부여하는 모델입니다. 이번 사례는 비은행·핀테크 기업의 중앙은행 결제망 접근 가능성을 시험하는 첫 사례로, 토큰화 자산 시장에서 결제 인프라 주도권 경쟁 구도를 재편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크라켄, 암호화폐 기업 최초로 연준 결제망 접근 권한 확보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Kraken)의 은행 부문인 크라켄 파이낸셜(Kraken Financial)이 미 연준의 마스터 계좌(master account) 승인을 받으며 중요한 전환점을 맞았다. 마스터 계좌란 페드와이어(Fedwire: FRB를 이용하는 은행 간 자금결제 시스템)와 같은 연준 결제 시스템에 직접 접근이 가능한 계좌를 말한다. 암호화폐 기업 중 연준의 마스터 계좌 승인을 획득한 건 크라켄이 처음이다.

기존 암호화폐 기업을 포함한 비금융회사들은 결제 처리나 정산을 위해 상업은행에 의존해왔고 높은 처리 비용과 긴 소요 시간을 감당해왔다. 이번 승인으로 크라켄은 중개 은행을 거치지 않고 기관투자자 및 대형 거래 고객의 달러 결제 등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구조를 확보하게 됐다. 시장에서는 이를 암호화폐 기업이 전통 금융 인프라에 직접 연결된 첫 사례로 평가하고 있으며, 암호화폐 기업의 금융 시스템 내 역할이 결제 인프라 참여자로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사건으로 보고 있다.

'스키니 마스터 계좌' 형태 … 결제 기능 중심의 제한적 접근

다만 크라켄이 확보한 계좌는 기존 은행들과 동일한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다. 이번 승인은 이른바 '스키니(skinny) 마스터 계좌'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연준이 핀테크·암호화폐 기업에 제한적 결제 접근권을 부여하기 위해 검토 중인 지급 계좌(payment account) 성격의 모델이다. 이 모델은 중앙은행 결제 시스템 접근은 허용하지만 준비금 이자 지급이나 연준 대출(discount window) 접근 등 일부 기능은 제공되지 않는다. 즉, 결제 기능 중심의 제한적 결제 접근권을 부여하는 구조로, 연준은 이를 통해 기존 은행과 동일한 규제 체계를 적용하지 않으면서도 결제 인프라 혁신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은행권 반발 … 비은행 대상 중앙은행 결제망 접근 시험대

이번 결정은 은행권의 반발도 촉발했다. Bank Policy Institute 등 주요 은행 단체는 연준이 관련 정책 프레임워크를 완전히 확정하기 전에 승인을 내준 점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특히 비은행 또는 암호화폐 기업이 기존 은행과 동일한 규제 감독을 받지 않으면서 중앙은행 결제망에 접근하는 것은 금융 시스템 안정성과 규제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례는 비전통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결제 전용' 중앙은행 계좌 모델이 실제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스키니 마스터 계좌를 통해 연준은 예금 수취·대출·할인창구 이용 등 일부 기능은 제한하면서도 결제망 접근만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시험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비은행·핀테크·디지털자산 사업자의 중앙은행 계좌 자격과 리스크 관리 기준을 둘러싼 제도 논의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

동시에 크라켄과 같은 암호화폐 기업은 단순 거래·중개를 넘어 기관 고객 대상의 달러 결제와 유동성 관리까지 직접 수행하는 '준(準)은행적 역할'을 확대하게 됐다. 이는 향후 스테이블코인 및 토큰화 자산 시장에서 어떤 사업자가 핵심 결제 인프라를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경쟁 구도를 재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Compliance Notice] (공표일: 2026 년 3 월 5 일)

이 자료는 조사분석 담당자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작성하였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했습니다. 본인은 이 자료에서 다룬 종목과 관련해 공표일 현재 관련 법규상 알려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인은 이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최윤영)
저희 회사는 공표일 현재 이 자료에서 다룬 종목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해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저작권이 당사에 있으며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나 정보출처로부터 얻은 것이지만,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종목 투자등급]

당사는 개별 종목에 대해 향후 1 년간 +15% 이상의 절대수익률이 기대되는 종목에 대해 Buy(매수) 의견을 제시합니다. 또한 절대수익률 -15~+15%가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Hold(보유) 의견을, -15% 이하가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Sell(매도) 의견을 제시합니다. 밸류에이션 방법 등 절대수익률 산정은 개별 종목을 커버하는 애널리스트의 추정에 따르며, 목표주가 산정이나 투자의견 변경 주기는 종목별로 다릅니다.

[산업 투자의견]

당사는 산업에 대해 향후 1 년간 해당 업종의 수익률이 과거 수익률에 비해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Positive(긍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1 년간 수익률이 과거 수익률과 유사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Neutral(중립적) 의견을, 과거 수익률보다 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Negative(부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산업별 수익률 전망은 해당 산업 내 분석대상 종목들에 대한 담당 애널리스트의 분석과 판단에 따릅니다.

[당사 조사분석자료의 투자등급 부여 비중] (기준일: 2025 년 12 월 31 일)

투자등급	매수	중립	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중	87.0%	13.0%	0.0%	100.0%